

전 남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웃음도 산업”

완도군 ‘장보고 축제’ 통해 새 이미지 홍보

대한민국 웃음 왕 선발대회 등 ‘웃음’ 선물

완도군이 지역축제를 통해 ‘빙그레 웃는(莞) 섬’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완도군은 지난 4~6일 사흘간 ‘제17회 장보고 축제’를 개최, 다양한 체험거리와 선보였다. ‘해양 테크노폴리스’ 건설과 ‘2014 국제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려는 완도군의 비전을 담은 ‘해조류 산업관’을 운영해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안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만 해도 1만여명에 이르러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빙그레 웃는 섬’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무형의 웃음을 산업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웃음 왕 선발대회’는 관광객들에게 웃음이라는 또 하나의 보약을 선물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9~5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광범한 직장을 가진 일반인부터 레크리에이션 강사, 개그 동아리 학생, 대학강사, 배우 등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개그를 선보였다.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전라

도 사투리 생산장수와 달살커피를 콘트를 펼친 ‘근갑다 해~’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은 즉흥적 입담과 상대모사를 연기한 이호근, 우수상은 코믹 퍼포먼스의 ‘분리수 거’팀과 ‘도미노’팀, 장려상은 뉴질랜드 마우리족 콩트의 ‘마오리족’팀과 ‘인하코리아 태권도 팀’, 뮤지컬 개그의 이은지씨가 각각 수상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전유성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웃음 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건 최조이자 이번이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나주시, 부패척결 나섰다

12개 자율과제 선정

나주시는 반부패 관련 ‘자율 개선 과제’를 선정, 부패척결에 발벗고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국민 권익위원회의 주요 자율 개선과제(16개 항목) 가운데 12개를 선정, 부패 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주요 자율 선정과제로는 ▲공공기관 고차점검 및 교차 감사 확대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운영현황 공

섬 주민 병원선 봉사활동

도, 7월까지 12개 섬 1207명 양·한방진료

전남도는 산안군 안좌면 사치도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선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병·의원이나 보건진료소가 없는 섬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온 것이다. 올해는 6개 시군 12개 섬 주민 1207명을 대상으로 양·한방진료, 전기·가스·가전제품 수리, 이·미용 등 봉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봉사활동에서는 병원선과 동산대항방병원 의료진이 관동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섬 주민들에게 침, 뜸 등 폭넓은 한방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봉사단은 동산대항방병원, 한전, 한국가스공사, 삼성전자, LG전자, Y미용학원 등 6개 민간기관 및 단체 43



무안 망운면 ‘스타롱비치 리조트’ 분양

10월 준공 ... 1계좌 1140만~2300만원

무안 국제공항과 인접한 무안 망운면에 연예인과 함께하는 꿈의 휴식처가 생긴다. 무안 스타리조트(주)는 무안군 망운면 괴서리 일원 5만2800여㎡(1만6000평)에 ‘무안 스타롱비치 리조트’(조감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리조트는 총 연면적 1만9570㎡(5920평) 규모로 숙박동 9개동 132실(1단지 3개동 42실·2단지 6개동 90실)을 비롯해 관리동·비즈니스 센터·샴술타바·해수 사우나·위터파크·승마 클럽·근린 상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무안 스타리조트(주)는 우선 1차분으로 숙박동 1단지 3개동 42실과 관리동·근린상가등을 착공해 오는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스타리조트(주)는 14일 무안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분양면적은 43.30㎡(13평형)~65.29㎡(20평형)이며, 1계좌 금액은 1140만~2300만원이다. 근린상가는 스타급 연예인들이 사업운영자로 나서 직접 투자하고 운영한다. 송경철(탈린트·영화배우)이 운영하는 ‘무안 양과 한우 전문점’, 이동준(탈린트·영화배우)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김한국(개그맨)이 운영하는 ‘코미디 클럽’, 한무(코미디언)씨가 운영하는 ‘한방 찻집·커피숍’, 최병서(코미디언)가 운영하는 ‘추억의 7080 라이브존’ 등이 대표적이다. 무안 스타리조트(주)는 인접한 무안 국제공항의 항공교통 이점을 살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지점을 ‘스타롱비치 리조트’에 유치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성형외과에 입원실이 없어 수술후 회복을 이용해야 하는 데다 수술후 관리문제 등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송경철 무안양과한우 전문점, 이동준 라이브카페, 김한국 코미디클럽, 한무 한방 찻집·커피숍, 최병서 추억의 7080라이브존

무안 스타리조트(주) 관계자는 “분양가가 다른 리조트보다 저렴하고 전용률이 높으며 구좌별 등급분양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풀구좌 구매의 경우 최초 1년간은 연 7%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운영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게 되어 있어 여가생활과 투자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문의(서울 02-556-5399·무안 061-453-1100)·홈페이지(www.star-resort.com)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전 북

익산역 100년 희망 콘서트

오늘 밤 7시 시민의 날 기념 ... 다양한 문화행사도

미래 익산 100년의 희망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10일 익산시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번 문화행사는 ‘익산역 개통 100주년’과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익산시로 통합된 ‘익산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다. 익산시와 익산 문화재단은 10일 오후 7시 익산역 앞 중앙로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익산역 100주년 기념 희망콘서트’를 연다. 1912년 3월 6일 개통한 이후 호남선·전라선·장항선 화가들이 그린 추억의 기차여행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10일 송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해 익산시로 새로 출발한 날로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익산 시민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익산 시민의 날’에 선정된 6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모범시민상 수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새만금권 통합 반대” 김제시 만경읍 이장단협의회는 최근 읍사무소에서 새만금권(김제·군산·부안) 통합 움직임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자체간 상호교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동질감과 공감대를 형성, 상호 신뢰를 구축한 가운데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 논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kwangju.co.kr

‘춘향골’ 남원 中 관광객 몰려온다

전통·문화 찾아가 7월까지 2000명 이상 방문 예정

중국인 관광객들이 ‘춘향골’ 남원으로 몰려오고 있다. 시는 9일 양광역행사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1차 선발대 120명은 9일 경기도 평택항을 통해 입국, 남원에서 1박2일 투어를 하고 광주·서울지역 관광을 실시했다. 5월 한 달 동안 모두 500여명의 중국관광객들이 3차례 더 남원을 방문하며, 6월과 7월에도 각각 4회에 걸쳐 1500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전통과 문화의 고장’ 남원을 찾을 예정이다. 중국 관광객들이 남원을 이처럼 선호하는 것은 판소리와 국악 등 전통문화와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에 있는 양광역행사의 모객 역할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양광역행사는 2011년도 전 북도에 외국인 관광객 1500여명을 유치한 여행사로, 중국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9일 양광역행사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만8000여명을 유치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남원 외국인치안봉사단 다양한 활동

남원경찰서(서장 방준원)는 9일 외국인치안봉사단(단장 고쵸보 노리코)과 다문화 서포터즈(회장 서금자)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활동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펼쳐나갈 봉사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다문화 서포터즈 회원들은 지난 2009년 7개국 출신 이주여성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내국인 주부 12명으로 구성됐

단 신

군산시, 군산항 화물 유치 서울서 설명회 열어

군산시는 9일 서울에서 경기, 수도권, 화주 등 물류사 45개 업체와 협력관력 30여개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군산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산항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동북아 경제 허브항으로 거듭나고 있는 군산항의 다양한 인센티브와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알리는 등 군산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동신 시장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기기자 nogusu@

김제경찰 ‘음주운전 근절’ 지구대 순회 캠페인

김제 경찰서(서장 이상주)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구대(파출소) 순회 캠페인을 벌인다. 김제경찰은 9일 청림동아리 회원과 교통경찰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고에 없이 출근길에 신중지구대에서 첫 캠페인을 벌였다. 이상주 서장은 “주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 개인의 청렴도와 도덕성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잘못된 음주 문화를 개선해 후진적 행태인 음주운전 행위 등의 무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고창군 ‘향토 전통음식 고창밥상 전문가’ 양성

고창군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2011년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포상금 7700만원으로 ‘향토 전통음식 고창밥상 전문가 양성사업’을 펼친다. 이강수 군수와 고용노동부 하현재 군산지청장은 지난 7일 군산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군은 결혼 이민자(70%)와 관내 희망여성(30%)을 대상으로 한식조리 전문기술을 교육할 ‘향토 전통음식 고창밥상 전문가 양성사업’을 실시, 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문의(063-560-2346)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캄보디아 지방민주발전위 순창 고추장마을 견학

캄보디아 지방민주발전위원회는 9일 순창을 방문해 순창군의 지방자치제도 및 공무원 인사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순창 고추장민속마을을 견학했다. 방문단은 펙 본튼 인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비롯한 내무부 차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군 영성회의실에서 순창의 지방자치 발전상과 순창군의 현황에 대해 청취한 데 이어 이어 순창 장유연구소와 장유 절임류공장의 시설을 둘러봤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동학혁명 118주년 전국 학술대회

내일 정읍에서 열려

동학농민혁명 제118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전국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에서 열린다. 동학학회는 11일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18주년 기념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 농민혁명의 전 단계로 평가받고 있는 고조 신원운동과 사발통문 거사계획, 고부봉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백산대회에서 동학농민군 진용이 조직돼 동학농

민혁명이 본격화됐음을 논증한다. 제1부에는 (사)정읍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조광환 전 이사장이 ‘최후의 동학농민군 최현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제2부 학술발표는 ‘동학농민혁명, 어떻게 시작 되었나’를 주제로 김용환(총북대)·김정호(인하대)·박대길(정읍시청)·임형진(경희대) 교수가 주제논문을 발표한다. 동학학회 최민자 회장은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